

칼뱅의 교육목회*

조용석(이화여자대학교 강사)

I. 글을 시작하며

본 연구의 주제는 칼뱅이 시도했던 교리문답교육, 이를 오늘날 회자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칼뱅의 ‘교육목회’에 관한 창조적 고찰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지는 칼뱅이 시도했던 ‘교리문답교육’을 오늘날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양육 혹은 제자훈련’라고 과감하게 표현하고 싶다. 오늘날 이와 같은 양육훈련이 체계화되어 중요한 교회사역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목회형태를 소위 ‘교육목회’라고 부른다. 오늘날 회자되는 ‘교육목회’ 개념은 교회를 교육공동체로서 간주하고, 기존의 전반적인 목회사역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구조화시키는 목회 패러다임으로서, 심방사역을 최대한 축소하고, 설교사역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심화된 말씀연구의 기회를 성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회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¹⁾

* 본 논문은 2013년 8월 5일 새문안교회에서 개최된 칼빈학회 공개강좌 제7강 “칼빈과 교육목회” 강의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왜 이와 같은 교육목회가 요즈음 대두되었는가에 대해 논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 싶다. 우선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교회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그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는 설교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외에 심방사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의 교육목회를 이미 종교개혁시기 칼뱅이 시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의 현대적 적용을 신중하게 시도해 보고자 한다.²⁾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교리문답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칼뱅의 교육목회 시스템, 칼뱅의 교육목회(교리문답교육) 교재, 칼뱅의 교육목회에 대한 성령론적 접근, 칼뱅의 교리문답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제안.

II. 종교개혁시기 교리문답교육의 특징

고대 교회시기부터 '세례문답'의 형태로 시작된 '교리문답교육'은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회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세례 수세자를 위한 교회공동체 입문과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³⁾ 종교개혁시기 개혁자들은 전통적인 세례문답용 교리문답교육을 중요한 목회사

역이 선호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성인들까지 교육대상에 포함된 '교육목회' 패러다임이 광범위한 실효력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 2) 이후 경건주의 시대에 돌입하면, 루터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운동이 일어난다.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감리교회의 '속회'(Class Meeting) 조직을 통하여, 오늘날 회자되는 교육목회는 활성화된다. 당시 이와 같은 교회운동을 현대적 의미의 '교육목회'라고 표현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지만 오늘날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역사적·신학적 뿌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 고대교회시기에 사용된 텍스트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작과 마지막에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서, 세례후보자는 세례문답시, 이 두 개의 기도문에 대한 주석을 구두로 암송해야만 했다. 중세시대에 작성된 교리문답은 로마-카톨릭 교회만의 고유한 교리적 체계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때부터 교리문답은 문서화되었는데, 주로 4-5가지 주제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단순명료하게 서술되는 방식이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주제(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례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었으며, 이외에도 마리아론과 교해성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마-카톨릭 교회의 종교개혁을 표방했던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본격적으로 로마-카톨릭 교회는 교리문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시기부터 시작된 로마-카톨릭 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 논자 주.

역 프로그램으로 특화시켰다. 만일 종교개혁운동의 선구자 루터가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루터의 소요리문답(1529)은 칼뱅의 『기독교강요』 초판 및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출판을 위한 결정적인 목회적·신학적 동기가 되었다. 루터의 소요리문답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장문의 답변이 제시되었던 기존 교리문답교재와는 달리, 세부적인 항목마다 질문과 대답이 명시되어 있다. 이후 루터의 소요리문답과 유사하게 작성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신앙고백문의 특성을 지니게 된 개혁교회의 교리문답이 있다. (예: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등) 이 경우는 신앙고백문의 특성보다, 교회공동체의 교육적 기능을 더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위스 종교개혁자 칼뱅은 예배예식 가운데 성찬식을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중요시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교리문답교육 이수를 강조하고, 이를 실천했다. 루터가 로마-카톨릭 교회를 향한 교리적 투쟁에 몰두했다면, 또한 츠빙글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에 입각한 공동체 개혁에 집중했다면, 칼뱅은 목회사역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신학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목회시스템, 즉 교리문답교육시스템을 확실하게 정착시켰다. 즉 이는 설교사역 이외에 성경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주변적 여건을 형성시켰다는 사실과 세례문답교육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전통적인 교리문답교육이 목회사역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시기의 교리문답교육의 핵심적 주제는 바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공유했던 칭의론적 의미의 신앙적 통찰과 이에 근거한 '성화'의 실현이었다.⁴⁾ 이와는 달리 오늘날은 성찬식 참여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교

- 4) 이는 로마-카톨릭 교회의 구원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립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믿음을 통하여 인간에게 선사된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키며, 더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칼뱅에게 있어서 특히 후자가 핵심적인 주제로서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칭의)는 과소평가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칼뱅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일군의 신학자 그룹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야기시켰던 신학적 주제가 '성화'였으며, 이로 인하여 개신교회 내부의 다양한 교파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도표는 16

리문답교육이 아니라, 전 성도들을 교회공동체의 직분자 혹은 봉사자로서 양육하기 위한 제자훈련 방식의 성경공부가 시도되고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전 성도들을 직분자 혹은 봉사자로서 세우는 훈련과정’, 혹은 ‘교회의 봉사자로서 직분을 받기 위한, 교회공동체의 봉사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신앙교육 및 성경공부과정’이라고도 규정하고 싶다.

III. 칼뱅의 교육목회 시스템

1536년 칼뱅은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파렐과 더불어 제네바의

세기 종교개혁운동 이후 ‘성화’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개신교회 교파가 형성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본자 주-

개신교회 교파형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
- ‘성화’ 및 ‘성령’(성화의 영) 개념에 근거하여 -

시대 구분	성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16세기 루터가 미완성한 신학적 작업 (루터교회)	성화에 대한 미흡한 신학적 개념규정
16-17세기 개혁-장로교회	정의와 성화를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규정, 결과적으로 성화를 매우 강조하는 것처럼 이해
16세기 재세례파	국가교회 종교개혁운동에 저항했던 성화운동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루터교회)	루터가 미완성했던 ‘성화’개념을 그의 신학에 의거하여 완성 (실전에 대한 강조)
18세기 영국 경건주의 (감리교회)	신앙적 체험과 성화의 완전한 결합 (성화의 완성이 가능)
19세기 성결교회	성령체험을 통한 성화의 실현, 이를 ‘성결’(Holiness) 라고 표현.
20세기 오순절교회	방언이 성령체험을 통한 성결의 증거라고 주장
현대 초교파 온사운동 (로마-카톨릭 교회 포함)	방언보다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며, 치유의 기적이 성령체험을 통한 성결의 증거라고 주장

회의 위탁을 받아, 제네바 시민과 거주자들이 서약하고 준수해야 할 교회규정과 신앙고백, 교리문답을 기획했다. 이후 1537년 1월 16일에는 파렐과 칼뱅은 소의회에 “강령”(Artikel)을 제출하면서, 이후 전개될 제네바 종교개혁운동 프로그램의 윤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⁵⁾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올바른 성찬식의 시행을 위하여 성찬을 수령하기에 부적합한 자를 단기간 배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 2) 로마-카톨릭 교회의 수도사들이 라틴어로 읊었던 시편을 성기형태로 복원한다.
- 3) 고대교회의 모범적 선례에 의거하여 어린이 교리문답교육을 실시한다.
- 4)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결혼분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가정법원을 설치한다.
- 5) 전체 제네바 시민들이 공동의 신앙고백을 서약한다.

여기서 세 번째 사항을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네바 거주 어린이들의 교리문답교육을 위하여 1537년 2월에 첫 번째 교리문답이 출판되었고, 1542년에 두 번째 교리문답이 출판되었다. 첫 번째 교리문답 프랑스어 제목은 다음과 같다: “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Eglise Conseil” 칼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의무적인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목회자 후보생의 신학교육보다 더 필수적인 과제라고 판단했다.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교회에서 주일 12시에 실시되는 교리문답교육을 이수해야만 했다. 충분히 기독교 교리를 숙지하

5) OS I, 369-377. 본 문건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r l’église et du culte a Genève, proposés au conseil par les ministres” (제네바 의회에 제출한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강령)

여 신앙적 이해가 심화된 어린이들만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1년에 네 번씩 시행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고백이 성찬식 참여를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던 것이다. 성인들 또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이를 위하여 부활절 성찬식이 거행되기 이전에 목사와 장로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에 관하여 질문했다. 이와 같은 심층면접에 합격한 이후에, 피질문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제네바 외곽지역 출신인 노예, 하녀, 가난한 자와 제네바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 또한 제네바에 거주하고자 희망한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검증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제네바에 거주할 수 있었다.

칼뱅은 이와 같은 엄격한 예비교육 이수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식이 자주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찬식 시행 횟수와 관련하여 칼뱅은 의회의 입장을 수용했다. 의회는 칼뱅에게 1년에 네 번씩(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가을 10월 첫째 주) 성찬식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성찬식 횟수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 시행을 통하여 교회의 교리문답교육과 교회 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화해사역을 강화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이후 성찬식은 분쟁의 중요한 진원지가 변모한다. 왜냐하면, 칼뱅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철저한 종교개혁적 입장에 근거한 신앙고백을 요구하며, 그들과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칼뱅의 교리문답교육의 기본적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모든 성찬 참여자는 성찬식 이전에 개신교 신앙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받아야 하며, 이를 고백해야 한다. 어린이 또한 교리문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네바에 거주하지 않는 이방인이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성찬식 이전

에 성찬에 대한 자신의 성찬이해와 신앙고백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합당한 성찬식 참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분쟁 중인 이웃과의 화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칼뱅은 목사들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목사들이 공동으로 모여 신학연구를 할 수 있는 목사단의 결성을 주장했다. 목사단은 일종의 형제적 사랑으로 결합된 위원회로서, 공동 성경연구를 통하여 상호간 성서이해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칼뱅은 한 지역의 목회자들이 매주 혹은 매월 성서연구를 위하여 모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적으로 금요일마다 회집하는 목사동우회(Vénérable Compagnie des pasteurs)를 통하여 성서주석이 포함된 신학교육이 수행되고, 아울러 다양한 신학적 의견이 조율되었다. 이는 1525년에 설립된 취리히의 성서 아카데미인 „에언“(Prophezei)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된 본 모임은 교육적인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콜로키움(Kolloquium)이라고 명명되었다.

IV. 칼뱅의 교육목회(교리문답교육) 교재

지금부터는 칼뱅이 어떠한 교육목회(교리문답교육) 교재를 사용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가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의 핵심적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던 제네바 교리문답이 당시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으로 사용되었다. 1537년에 본 교리문답이 처음으로 출판된 후, 1542년에는 첫 번째 판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두 번째 판이 출판되었다. 두 개의 교리문답의 공통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칼뱅 스스로 『기독교강요』를 전통적인 교리문답 형식에 맞추어 요약한다.⁶⁾

제네바 교리문답 1,2판은 그의 『기독교강요』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요약했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는 유사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두 번째 판에 그의 목회적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왜냐하면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획득했던 목회자로서 경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여기서는 두 번째 판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1542년 칼뱅은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Le catéchisme de l'Église de Genève) 프랑스어판을 교리문답교육을 위하여 출판했다. 이후 1545년 출판된 제네바 교리문답 라틴어판은 그의 신학적 영향력이 스위스 프랑스어 사용지역을 초월하게 만들었다. 본 교리문답에서는 55개의 단락 안에서 간략한 373개의 질문과 대답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율법보다 복음을 더 강조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사도신경 주석, 십계명 주석, 주기도문 주석, 성례전론.

칼뱅에게 있어서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던 『기독교강요』의 축소판이다. 그의 『기독교강요』는 로마-카톨릭 교회의 부패한 폐부를 뚫고 새롭게 다양한 형태로 출현했던 종교개혁진영의 신학적 입장을 최종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학술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를 향하여 헌정하고자, 그의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서술했던 『기독교강요』는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구성, 배열하여,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은 이와 같은 신학적 의도를 지니고 기술된 『기독교강요』

를 교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휴대용 요약본으로서, 성서의 개별구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⁸⁾ 지금부터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을 간략하게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제1항부터 소개하자면,

질문: 중요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⁹⁾

이는 모든 개혁교회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서, 개혁신앙의 근본을 선언하는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제1항은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키며, 인간의 유한함과 대립되는 무한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짐승보다 비참하기 때문에(제4항),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제6항) 또한 이는 구원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제13항),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제14항) 이 모든 것은 사도신경 안에 요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칼뱅이 본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사되는 구원의 은총의 유익을 해명하기 위하여 작성했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제63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6) Herman J. Selderhuis, (Hrsg.), *Calvin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8), 210.

7) 1542년 프랑스어판 제네바 교리문답은 1534년 부처가 작성했던 스트라스부르 교리문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Christoph Strohm, *Johannes Calvin: Leben und Werk des Reformators* (München: Verlag C.H. Beck, 2009), 65.

8) Reinhold Hedtke,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Wiebelsheim: Quelle u. Meyer, 1969), 83.

9) Quis humanae vitae praecipuus est finis? Ut Deum, a quo conditi sunt homines, ipsi noverint, OS II, 75.

질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신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대답: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나은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¹⁰⁾

또한 제네바 신앙고백의 사도신경 주석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 이후에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제 104항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하나됨을 끝까지(ad finem) 보존하지 않는 이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se esse ecclesiae membrum) 한다고 강조한다. 주님의 몸되신 교회 없이 죄의 용서는 있을 수 없다는 제네바 교리문답의 선언은 우리가 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격에 찬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칼뱅의 목회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예정론’과 관련된 교리적 논쟁이 삭제된 이유도 그의 교리문답교육의 목회적 의도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의 목회적 관심은 제110항에서도 드러난다.

질문: 왜 사도신경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언급합니까?

대답: 사도신경은 경건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의 운명은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¹¹⁾

10) Verum, non videtur quidquam ad nos utilitatis ex hac Victoria redire, quum nihilominus moriamur. Nihil id obstat. Neque enim aliud nunc est mors fidelibus, quam transitus in vitam meliorem, OS II, 83-84.

11) Cur ergo sola hic vita aeterna commemoratur, inferorum nulla mentio? Quoniam nihil hic, nisi quod ad consolationem piarum mentium faciat, habetur: ideo recensentur tantummodo

제132항부터는 율법에 관한 해석이 시작된다. 율법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명하는 행위라고 선언하고 있다. 첫째 계명과 관련하여 칼뱅은 개혁-장로교회의 핵심교리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을 선언한다. (제140항)

질문: 첫째 계명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대답: 다른 (피조물에 영광을) 전가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¹²⁾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기 위하여(제155항) 제정하신 십계명은 결코 유대인의 규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것임을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준수의 경우, 육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칠일에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폐기되고(제 168항)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안식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다. 제180항에서 칼뱅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날이라고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는 안식일 준수가 성경말씀에 근거한 것이지만, 아울러 공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대답: 공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휴일이 지정된다면, 누구든지 나머지 시간 동안 노동에 전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¹³⁾

praemia, quae servis suis Dominus praeeparavit. Itaque non additur, quae nobis impios maneat, quos scimus regno Dei alienos esse. OS II, 92.

12) Quid autem hoc primo capite exigit? Ut suum illi soli honorem in solidum asseramus, neque ullam eius partem trasferamus alio. OS II, 97.

13) Ut iis qui sub aliena potestate sunt, aliquid laxamenti detur. Quin etiam hoc ad retinendam

제185항부터 제232항까지는 나머지 여섯 계명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칼뱅이 칭의와 성화의 은총을 분리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천명한다. 제126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답: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신앙을 통하여 영접했다면, 이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지 않는 한, 양자(칭의와 성화)는 필연적으로 결합됩니다.¹⁴⁾

제233항부터 제295항은 기도에 관하여, 특히 기도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칼뱅은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의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만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제243, 제244항) 제249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실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 그들의 기도는 아무런 약속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무익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사될 것입니다.¹⁵⁾

communem politiam valet. Nam ubi dies unus quieti assignatur, ita se quisque ad laborandum in reliquum temporis assuefacit. OS II, 104.

14) Fieri hoc nequit. Nam quum recipiamus fide Christum, qualem se nobis offert: ipse vero non libertationem tantum nobis a morte et reconciliationem cum Deo promittat: sed spiritus sancti simul gratiam, qua in vitae novitatem regeneremur. Haec coniungi necesse est, ne Christum a e ipso distrahamus, OS II, 95.

15) Quid ergo his fiet, qui haesitantes orant: nec in animis suis statuunt, quid orando

또한 본 교리문답은 용서가 전제된 기도에 대해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청된다. 제285항에 의하면,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과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구절이 해석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한 죄를 참회하며,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향은 천명한다. 이 또한 교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을 치유하기 위한 칼뱅의 목회적 의도가 내포된 조항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에 근거하여,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제285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질문: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배푸시는 용서를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대답: 아닙니다.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라면 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해진 불의를 상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용과 선하심을 본받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식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속하게(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냉혹하시며 엄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만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¹⁶⁾

profecturi: imo incerti sunt, audiantur necne a Deo suae preces? Vanae sunt ac irritae ipsorum preces, cum nulla promissione sint suffultae. Iubemur enim certa fide petere: et promissio additur, quidquid credentes petierimus, id nobis datum iri. OS II, 116.

16) Haec quae apponitur conditio: ut nobis remittat, sicut nos remittimus debitoribus nostris: num mereri nos a Deo veniam significat, hominibus, si quid in nos peccarunt, ignoscendo?

제296항부터 마지막 제373장까지는 성례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칼뱅에 의하면, 빵과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영혼의 음식, 즉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성찬이라고 선언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을 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제361항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일 완전하다면, 성찬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성찬은 연약하며 불완전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존재합니다.¹⁷⁾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강요』의 요약본으로서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의 목회적·교회정치적 의도가 충분히 추측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논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다.

교리문답교육은 제네바 시민들의 구원의 확신의 강화와 성화의 실현을 위한 말씀 중심의 신앙교육으로서, 1세대 선배 종교개혁자들(루터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며, 로마-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개신교회 진영을 사수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목회 프로그램이었다.

Minime, Sic enim iam gratia remissio non foret, nec sola Christi satisfactione, qua in cruce pro nobis defunctus est, sicuti par est, fundata. Verum, quia irogatas nobis iniurias obliviscendo, dum eius clementiam ac bonitatem imitatur, re ipsa nos eius filios esse demonstramus: hac ideo tessera confirmare nos voluit. Et simul ex adverso ostendere, nisi faciles nos ad ignoscendum et flexibiles praebuerimus, nihil esse aliud a se expectandum, quam summum et inexorabilem severitatis rigorem, OS II, 125.

17) Quin potius, si perfecti essemus, nullum amplius usum inter nos haberet coena: quae sublevandae nostrae imbecillitati adminiculum esse debet ac imperfectionis subsidium, OS II, 142.

V. 칼뱅의 교육목회에 대한 성령론적 접근

칼뱅에게 있어서 교리문답교육은 성찬식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던 반면에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프로그램은 교회직분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도 서두에 언급했다. 즉 성찬식이야말로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예배예식이라고 생각했던 칼뱅과 달리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직분자로서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기여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회적 사안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상이한 것 같지만,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양자 간에 존재한다. 칼뱅이 작성한 교리문답교재는 로마-카톨릭 교회와 대비되는 종교개혁진영의 신학적 입장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특히 성례전 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읽어 보노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반면에 요즘 현대교회가 사용하는 양육(제자훈련) 교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성경공부 방식으로 알려준다. 일종의 교파적 특성이 사라진 초교파적인 신학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종교개혁시 기 개혁운동의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 재세례파의 입장이 현대교회에 와서 비슷하게 재현된 것 같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대교회의 교육목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회자되기도 한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와 관련하여, 칼뱅이 피력하는 견해는 16세기 재세례파의 신학적 입장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철저한 순교자-순례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칼뱅이 시도했던 교리문답교육은 오늘날까지도 현대교회 안에서 그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¹⁸⁾ 현대 개신교회 안에서는 평신도들이 ‘성찬식’

18) 그것은 세례식 이전, 혹은 학습예식 이전에,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목사후보생 교육과정에

에 참여하기 전에 이수해야만 하는 교리문답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예배 예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성찬식은 가끔씩 체험하는 일종의 습관적인 예배문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종교개혁시기 개혁자들의 교리문답교육을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칼뱅의 교리문답교육의 현재적 의미를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가 주장했던 성찬식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성찬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성찬식에 참석하기 전, 성찬 수령자의 신앙고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교리문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본질적인 신학적 근거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성찬식과 관련된 교리문답교육의 본질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해법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의 성찬론은 1세대 개혁자 루터와 츠빙글리와는 다른 관점으로 전환, 전개되고 있다. 루터의 성찬론은 공제설로, 츠빙글리의 성찬론은 상징설로 회자되고 있음을 유념한다면, 이 두 사람의 성찬론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임재방식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칼뱅은 이와는 달리 신앙의 유익을 위한 성찬을 주장하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칼뱅의 성찬론에 대한 신학적 관심이 단순히 이론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목회적·실천적이라는 사실을 함의할 수 있다. 실제로 칼뱅은 성찬식 참석 이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중요한 검증절차로서 제시했다. 왜냐하면 칼뱅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교리문답교육의 주교제였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또한 그리스도와의 사귄을 위한 성찬을 주장하면서, 『기독교강요』 초판 성찬론의 목회적·실천적 관심을 포기하지 않

입학하기 이전 치러야만 하는 노회고시 혹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 치러야만 하는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시행되곤 한다. 장로로서 임직받기 위한 교리문답교육도 존재하고 있다.

고,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1559년 최종판 성찬론까지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는 이 관점에 대해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칼뱅은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루터가 주장했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 임재를 성령론적 전망 속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루터의 편재설(遍在說, the theory of ubiquity)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편재설만을 제외한 채, 루터가 제시했던 성찬론의 핵심주제인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성찬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 시식을 통한 은총의 수령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한다. 또한 칼뱅은 루터의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설을 비판했던 츠빙글리의 입장을 중심으로 수용한 채, 그가 주장했던 상징설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즉 주님의 제정사를 통하여 기록하게 된 빵과 포도주는 결코 단순한 신앙의 상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칼뱅의 성찬론은 루터의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설에 대한 합리적 비판 및 이에 대한 성령론적 전망 속에서의 재해석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이는 성찬에 대한 구원론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성찬식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영적으로 시식한다고 주장했던 칼뱅은 루터의 편재설과 츠빙글리의 상징설(기념설)의 문자적 의미만을 제외하고, 두 사람이 주장했던 모든 것을 성령론적 관점 속에서 복회적 의도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결합시켰던 것이다. 그는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년)에서 다음과 같이 성령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욕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빵과 포도주의 시식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영적인 시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의 성찬론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비적 차원을 지시

19) Atqui Spiritui sancto non levis fit iniuria, nisi credimus fieri incomprehensibili eius virtute ut cum carne et sanguine Christi communicemus. OS V, 391.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활용하여 시도되는 교리문답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해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성령론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성찬식의 신비로움과 조화롭게 양립된 지적인 차원의 신앙교육.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칼뱅에게 있어서 교리문답교육은 단순한 지적인 차원의 신앙적 동의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무미건조한 교육목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귄(성찬식)에 동참하기 위한 지적인 차원의 자발적인 신앙적 동의과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 교리문답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고백의 숙지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했던 칼뱅의 최종적인 신학적-목회적 의도이다.

츠빙글리와 칼뱅을 통하여 시작된 개혁신학전통은 십계명 중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집중하면서, 우상숭배금지 조항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그래서 개혁-장로교회는 로마-카톨릭 교회, 루터교회는 달리 성화상을 완전히 폐기했다. 이로 인하여 개혁-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문화는 매우 무미건조한 것이라는 편견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칼뱅의 목회사역과 신학사상을 편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칼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형적 이미지로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론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신비를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차원,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감성적 차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서 활동했던 개혁주의 신학자 워필드(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1851-1921)가 칼뱅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규정은 20세기 성령의 시대 속에서 16세기 칼뱅을 새롭게 이해

한 것이다. 이는 칼뱅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칼뱅이 강조했던 성령의 사역이 시대적 여건상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필드의 칼뱅해석에 좀 더 부연하여, 칼뱅의 신학사상의 핵심주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고자 한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귄.

VI. 글을 정리하며

지금까지 칼뱅의 교리문답교육을 현대적 의미의 ‘교육목회’의 관점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시도했다. 즉 칼빈의 교리문답교육은 현대교회의 교육목회의 본래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신학적 근거로서, 이는 성령론적 전망 속에서 전개되는 그의 성찬론과 조화롭게 양립시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교강요』의 축소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이 그의 교리문답교육의 교재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논증한 내용에 근거하여 오늘날 칼뱅의 교리문답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칼뱅의 목회적 관점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전통적인 교리문답교육과 평신도 제자훈련과의 창조적 결합모델 연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서에 적합한 제자훈련 성경공부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되, 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교리문답교육의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가 창조적으로 가미될 수 있는 방식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칼

뱅의 주입식 교리문답교육을 오늘날 현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에 적합한 소
통형 교리문답교육 방식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찬식의 예술적 차원으로의 창조적 승화

칼빈의 성찬론에 의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빵과 포도주의 물질적 표
상이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로서 이해된다. 따라서 성찬식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구상,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문
답교육이 성찬식 참여를 위한 중요한 전제였다는 사실을 최대한 고려한다면,
오늘날 또한 다양한 교육목회 프로그램들을 영적인 성찬식의 체험으로 수렴
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은 결코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위하여 기
독교적 의미를 지닌 청각예술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활동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기독교 시각예술의 장려

개혁-장로교회 전통의 대표적 상징인 십계명의 '우상숭배 금지조항'을 기
본적으로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인의 정서에 적합하도록 기획된, 수준높
은 기독교 시각예술활동이 장려되어야만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주장하는 테
제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주목하는 일종의 교육목회 프로그램으로서, 혹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주로 활용하여 시행되는 교리문답교육(혹은 교육목회 프로그램)의 단점을 극
복할 수 있는 목회적-신학적 시도로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
다면, 시각, 청각예술의 조화로운 결합만이 지적인 기독교 신앙의 감성적 결
핍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청각예술의 불균형한 발전을 야기시
켰던 초기 개혁신학전통의 시각예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모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Calvin, John,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5 Bde. Hg. v. P. Barth, W. Niesel [und D. Scheuner],
München 1926-52. 약어(OS, 칼빈선집)
_____.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r l'église et du culte a Genève, proposés an conseil
par les ministres*. OS I, 368-377.
_____. *Catechismus Ecclesiae Genevensis*, OS II, 59-151.
_____. *Institutio Christinae Religionis*. (1559), OS III, IV, V.

2차 문헌

- Bellinger, Gerhard J. *Katechismus IV. Konfessionskundlich/Ökumenisch*. Gerhard Krause,
Gerhard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and 17: Jesus Christus V -
Katechismuspredigt, Berlin: De Gruyter, 1988, 738-744.
Chrobach, Werner, Hrsg. *Der Katechismus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München,
Schnell & Steiner, 1987.
Codling, James L. *Calvin: Ethics, Eschatology, and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Cottret, Bernard. *Calvin. Eine Biographie*. Stuttgart: Quell-Verlag, 1998.
Hedtke, Reinhold.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Wiebelsheim: Quelle u. Meyer, 1969.
McGrath, Alister E. *Johann Calvin. Eine Biographie*, Zürich: Benziger, 1991.
Luther, Martin. *Der Große und der Kleine Katechism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Opitz, Peter. *Leben und Werk Johannes Calvi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Plasger, Georg. *Johannes Calvins Theologie - Eine Einführ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Seiderhuis, Herman J. Hrsg. *Calvin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8.
Tidwell, Charles, *The Educational Ministry of a Church*. Nashville: B&H Academic, 1995.
Strohm, Christoph. *Johannes Calvin: Leben und Werk des Reformators*. München: Verlag
C.H.Beck, 2009.

국문도서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서울: 에듀민, 2004.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정용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정준모. 『교육신학자 존 칼빈』. 서울: 한들출판사, 2009.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